

제 12 회 중 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5-88

한글 성명: 김청미

젊음
 젊음, 그것은 누군가에게 아쉬움과
 비현을 덕시 덕시 남긴 오래된 일기장이
 고 누군가에게 땀방울과 눈물로 얼룩진
 이력서 한 장이다, 그래서 젊음은 지나온
 누군가에게 돌아가고 싶은 가장 빛났던
 시절이고 누군가에게는 벗어나고 싶은
 고통일수 있다. 오늘은 나에게 젊은이란
 무엇인지에 대해 고적여 보려 한다.
 지금 한창 젊음을 부르고 있는 나에
 게 젊음은 뜨거운 인스턴트 커피이다.
 산더미 같은 과제들로 밤을 새는 게 어
 느릿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, 나와 가장
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인스턴트 커피,
 그것은 스타벅스 한 잔에 별별 손을 떠
 는 나의 먼지 폴폴나는 지갑이고 다크
 셔플러 시커먼 눈으로 준비처럼 걸어다
 닐수라도 있게 만들어주는 약이다. ~~빠른~~
~~빠~~인스턴트 커피 봉지를 톱 파서 표머
 그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는다. 득명

제 12 회 중 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588 한글 성명: 김청미

하 던 물이 점점 까매지고 그 냇이 어쩔
지 서글프 다. 커피 뽁뽁 지 루 대충 희 희
젖는다, 서글퍼 지 는 바 음과 밭도 안 되 는
잠생 각을 털어 버 리 허 는 동 작 인 지 도 모 르
겠 다, 또 거 운 거 괴 를 들 이 뽁 고 는 다시
과 세 를 시 작 한 다. 또 거 운 선 지 지 리 도 심
어 하 던 나 인 데 어쩔 지 또 거 운 이 느껴 시
지 않 는 다. 익숙 해 진 건 가 쏘 다 가 도 이 내
아 래 오 는 허 바 닥 과 삭 도 가 아 직 익 숙 해
진 건 아 니 라 는 뭉 고 밭 밭 해 수 는 듯 쏘 다,
쏘 쏘 한 커피 와 함 께 나의 재 미 없 는
뽁도 저 물 어 간 다.
나 에 세 젊 음 이 한 무 산 없 이 비 속
에 서 ~~잘~~ 추 는 춤 이 다. 영 화 나 뮤 지 컬 에
서 자 주 보 이 는 특 히 멜 로 영 화 에 서
가 상 로 맨 틱 한 장 면 이 라 생 각 하 는 상 면
이 다. 나 에 세 도 나 와 함 께 비 속 에 서
함 께 춤 을 추 며 웃 을 수 있 는 누 군 가 를
늘 바 랐 다. 젊 음 의 사 랑 을 꿈 꾸 지 않 는
청 춘 은 없 을 것 이 다. 영 화 속 에 서 볼 래 는

제 12 회 중 국 성균 한글 백 일 장

접수번호: 2021 - CNS0588

한글 성명: 김청미

그렇게 나 아흐다워 보이고 남들이 하는
 것을 볼때마다 그렇게 부럽던것, 설렘
 가득 안고 시작해 몸속에 스며드는 방
 물방울이 그렇게 달콤 ~~히터~~했다. 눈만
 마주쳐도 행복하고 다른 무엇과도 바꿀
 수 없을것 같았다. 시작은 그랬다. 그러
 다가 어느 ~~순간~~순간부터 다 젖어 버린
 몸이 비바람에 으슬 으슬 떨려모더니 그
 끈적끈적한 느낌이 가뭇 질리는 듯한 기
 분이 든다. 그러다 어느새 비속에서 함
 께 출추던게 둘이서 하나로 되어버리
 고 만다. 나와 눈 맞추고 손 잡고 함
 께 리듬 타던 상대는 어느새 비를 피
 해 사라졌다. 비속에서 나홀로 추던
 춤을 멈추으니 어느새 비도 그친다. 젊
 음의 사랑을 순식간에 왔다 순식간에
 그친다.
~~젊음~~다한 나에게 젊음이란 터져버리기
 앞보 직전인 캐리어이다. 어느 청춘이나
 그렇듯 나도 참 많은 기여를 받고 왔

제 12 회 중 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 - CNS0588

한글 성명: 김청미

다. 가족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잃어
 지고 목적지 ~~없~~은 티켓을 쥐어지고는
 전고 ~~와~~다. 어려서부터 늘 가족들은 나
 에게 많은 것을 희생했다. 그리고 그 희
 생들 ~~매~~은 많은 기대들을 동반한다. 나는
 소확행이 좋은 사람인데 내가 지금 사
 는 삶은 그렇지 않다. 가족들의 ~~목적지~~
 대를 나의 젊음의 캐리어에 차곡차곡,
 아니 꾸역꾸역 밀어 넣고 어디에 있는지
 모를 비행장을 향해 걷는다. 다른 이들
 은 일단 그 비행장에 도착만 하면 비
 행기를 타고 저 높은 곳으로 ~~날아오~~를
 게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한다. 그러니 비
 행장을 찾을때까지만 버티라 한다. 그
 과정이 사실 나는 너무 힘들다. 터져버
 린듯 ~~꼭~~찬이 캐리어도 목적지 ~~없~~
 티켓의 막연함도 보이지 않은 비행장의
 감감함도. 그래도 걷는다. 터벅터벅 오늘
 도 걷는다. 멈추지 못해 걷는다.
 나에게 젊음이란 미련 것이다. 지나고

제 12 회 중 국 성균한글백일장

접수번호: 2021-CNS0588

한글 성명: 김청미

나면 이 젊음이 이 그리워지는 모르겠으나
 지금은 그저 빨리 지나버리고 싶은 그
 런 것이다. 불안함에 현혹된 나의 젊음,
~~바탕 바탕~~ 이 시대의 많은 젊음들 또한
 이런 것이다.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
 는 불안한 ~~청춘들은~~ 젊음들은 사실 작은
 말 한마디에도 쉽게 웃곤 한다.
 "괜찮아, 넘어쳐도 괜찮아. 조금만
 쉬어 가도 괜찮아." 이런 말 한마디
 해주는 어른 한 명에 젊음을 부끄러워하
 는 청춘들은 또 번쩍 일어나서 군다.
 오늘도 밤은 또 온다. 정적이 내려
 앉은 밤에 물 끓는 소리가 또 들리겠
 지. 오늘 밤에 누나 옆에 커피 바시시
 말고 그만 자라고 말해주는 누군가가
 있었으면 좋겠다.